# 매립장 갈 낙엽 SRF로…반입 실태 '깜깜' 폐기물 행정 '구멍'

〈고형연료 제조시설〉

**공공용 봉투에 기피품목·쓰레기 혼재**

**공단 "혼입 시기·물량 산출 어려워"**

**선별 후 재매립 '이중 비용' 발생**

**區 "배출 단계부터 분리배출 당부"**

전남광주 고형연료 제조시설(SRF)에 낙엽 등 반입 금지 품목들이 무분별하게 혼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폐기물 행정의 구멍이 드러났다.

당국의 관리 부실로 인해 불필요한 재선별 과정과 매립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행정·재정적 낭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도로변 낙엽과 나뭇가지 등이 공공용 종량제봉투에 담겨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수거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SRF로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SRF는 종량제봉투에 담겨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파쇄·선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고형연료로 만드는 시설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중 낙엽과 연탄재, 나뭇가지 등은 고형연료 제조에 적합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광역위생매립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SRF 기피품목이다.

그러나 도로변 낙엽과 나뭇가지 등을 공공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과정에서 일반 생활쓰레기가 함께 섞이거나 시민들이 해당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담당하는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은 낙엽 등이 일반 생활쓰레기와 섞여 SRF에 반입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혼입 시기와 물량은 산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낙엽과 나뭇가지를 공공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시민들이 여기에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폐기물이 섞인 채 봉투 단위로 수거되기 때문에 정확한 혼입 시기와 물량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형연료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낙엽 등 기피품목이 SRF에 반입되더라도 연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선별 과정에서 걸러져 다시 매립장으로 보내진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설비 운영과 매립 등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SRF 운영사 측 설명이다.

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관계자는 "연료로 만들 수 없는 성분이 들어오면 선별 과정에서 걸러져 매립장으로 보내진다"며 "이 과정에서 설비 운영비와 매립 비용이 별도로 발생해 전남광주시에 적정한 폐기물 반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낙엽 등 기피품목은 기존에도 SRF 반입 대상이 아닌 만큼 시설을 관할하는 전남광주시도 매년 가을철 각 자치구에 별도 수거와 광역위생매립장 반입을 안내해 왔다.

시는 지난달에도 5개 자치구 등에 공문을 보내 가로수 낙엽과 은행열매 등을 광역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낙엽 등이 일반 생활쓰레기에 소량 섞여 SRF로 반입될 가능성은 있다"며 "다만 실제 혼입 여부와 그 규모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선 자치구에서도 수거 과정에서 혼합 배출된 폐기물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배출 단계부터 분리배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낙엽과 일반 생활쓰레기가 한 봉투에 섞여 있으면 수거 과정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배출 단계에서 구분되지 않으면 처리시설에 반입되기 전까지 혼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연상 기자

# 부실 시공에 금품 비리 경찰, 광주대표도서관 참사 51명 송치

**공무원·감리자·시공사 관계자 등**

**뇌물·직권남용 등 비위 사실 확인**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무원과 감리자, 시공사 관계자 등 51명을 송치하며 마무리됐다.

1일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과 감리자, 시공사 및 공사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뇌물·직권남용·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 중 12명은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게 송치된 피의자이며, 나머지 7명은 앞서 송치된 공사 관계자들이다. 송치된 19명 중 공무원 1명은 뇌물약속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감리자 6명은 뇌물수수, 시공사 임직원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뇌물공여·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를 각각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주요 책임자 11명을 1차 송치했다. 이 중 4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어 8월5일에는 발주처 공무원 2명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 2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불법 하도급, 무등록 건설업 등의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중복 송치된 7명을 제외하고 총 51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부실 시공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초래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이후 광주서 첫 폐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전남광주에서 처음으로 문을 닫은 매장이 나왔다.

1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따르면 전남광주 동구 산수동 무등산국립공원 초입에 위치한 '스타벅스 광주지산유원지입구점'이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해당 매장은 지난 2017년 10월30일 지상 2층 규모의 단독 상가건물에 문을 열어 약 9년간 운영된 곳으로, 인근 주민들은 물론 무등산을 찾는 방문객들도 이용해 온 대형 매장이다.

이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첫 매장 폐점 사례다.

그러나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이번 매장 폐점이 '탱크데이' 논란이나 불매운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지현 기자



**양림동 골목서 즐기는 오감만족 미식여행** 지난달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림동 일대에서 열린 '양림미식여행'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페이스페인팅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깊어가는 가을, 양림동 골목에 활기를 더했다. /김애리 기자

# GGM 노사, 단체협약 잠정합의…단식농성 종료

**근로시간면제 2천700시간 등 합의**

**2027년부터 설·추석 귀향비 인상**

**오늘 조합원 찬반투표 거쳐 확정**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가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장기화됐던 노사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GGM 노사는 지난달 29일 집중교섭을 통해 2024년 단체교섭과 관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이어진 단식농성도 18일 만인 29일 종료됐다.

잠정합의안에는 근로시간면제 2천700시간, 노동조합 사무실 사내 제공, 2027년부터 설·추석 귀향비 및 하계휴가비 90만원 인상, 단체교섭 타결에 따른 상생지원금 50만원 지급, 상생협력기여금 지급기준 일부 개선 등이 담겼다.

노조는 이번 합의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잠정합의안은 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찬웅 기자

# 금타 광주공장 30대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전남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30대)씨의 팔이 기계 설비 롤러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노동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사고가 발생한 설비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날 오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공문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옥근 기자





